

## “앞아서 죽을 것인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 금속노조 2022년 투쟁선포식 성사... 정부·경찰 협박 방해 공작 뚫고 3천 명 집결

금속노조가 4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2022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노동중심 산업전환과 노동교섭 쟁취 20만 총파업’을 향한 투쟁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금속노동자 3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정부·경찰의 협박과 방해 공작을 뚫고 투쟁선포식을 힘차게 열었다.

금속노조는 투쟁선포식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의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노동중심 산업전환 3대 의제 7대 과제를 쟁취 총파업을 성사하자고 선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선포식 대회를 통해 “코로나 19 재난 시기에 고통은 노동자,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 반면 재벌은 온갖 특혜로 재난 시기보다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라면서 ▲1,000조 원 넘는 재벌사 사내유보금 ▲간접고용·불법과건, 다단계 하청구조 ▲노조할 권리 침해 등 노동자와 노조 앞에 닥친 문제를 열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벌써

일곱 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에 가지 못했다” 라며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금속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라고 비통한 현실을 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재벌이 주도하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이 불안하다” 라면서 “재벌주도 산업전환은 자본가에게 무한 이윤을 안기고,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실업의 고통을 안길 것이다. 재벌주도 산업전환을 우리 금속노동자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의 최근 반노동 행보를 지적하며 “앞아서 죽을 것인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2022년 정세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2022년 투쟁 승리하자. 금속노동

자 대표로서 위원이 선두에서 20만 총파업을 조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윤석열 새 정부는 자본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반노동,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정치

를 기조로 정했다” 라며 “금속노조의 투쟁 방향이 명확해졌다. 정권과 자본의 폭주에 맞서 금속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자” 라고 외쳤다.

안현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금속노동자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자본가든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돌파했다” 라며 “현대자동차지부가 동지들과 단결투쟁에 함께하겠다.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약속을 기필코 지키겠다” 라고 천명했다.

금속노동자 3,000명은 투쟁선포식을 힘차게 치르고,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금속노조를 비롯한 가맹 산별노조연맹과 본부 조합원 6,500명이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 좋은 일자리 쟁취” 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세 지회 다시 투쟁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특별협의 교섭단 기자회견 ... 1,797명 중 260명 채용안 제시, “국제 파렴치 지엠자본”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섭에 나선 금속노조 교섭단이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 교섭단은 4월 13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범죄 축소안 철회 ▲

노조 4대 요구안 수용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특별협의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불법파견 행위·비정규직 노동탄압 공식 사과와 배상 ▲불법파견 투쟁·구조조정 과정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한국지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동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이다.

한국지엠은 3월 24일 3차 교섭에서 ‘1차 하청업체 소속 직접 생산 공정 현재 재직자 260명 발탁채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엠은 3월 31일 ‘1차 범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후속 교섭은 없다면서, 5월 1일 자로 1차 업체 폐업과 해고 예고 통보를 강행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3차 교섭 제시안은 불법파견 범죄 반성은 커녕 노동부 시정명령,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범죄 행위 축소안이다”라며 “교섭을 요청한 의도와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안을 철회하고 교섭에 나오라”라고



통보했다.

이번 교섭의 대표인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이 먼저 불법파견 교섭을 제안해서 의아했지만,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섭에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밝혔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한국지엠은 교섭에서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사과할 게 없다는 태도였다. 160여 명의 해고자 문제는 ‘과거의 문제다. 지금 협의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기관인 노동부가 1,79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정했는데 고작 260명을 채용한다고 얘기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먹튀하는 자본, 국제 파렴치 자본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엠자본이 20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과 금속노조를 도발했다”라며 “파렴치 국제 먹튀 지엠자본과 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뿌리 뽑는 투쟁을 금속노조가

조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영수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교섭에서 여전히 비용 얘기를 하면서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탁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영수 지회장은

“지엠자본은 현대자동차·현대제철 자본과 똑같이 불법파견 범위를 직접 공정으로 축소하고 발탁 채용 방식으로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한국지엠 부평·창원·부품물류 비정규직 세 지회는 한국지엠 260명 발탁 채용 제시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지회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가장 앞장서 불법파견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정규직화 투쟁하면서 해고와 벌금 등으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이 또 해고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지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차, 2차, 3차 하청을 구분하지 않는다. 직접, 간접 공정도 구분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라면서 “노동자의 상식대로, 법원의 판결대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내용대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